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2. 5.(목)

철도노조 파업 상황(12.5, 11시) : 운행률 93%, 파업참가율 22%
- 국토부 장관, 수송대책 점검... “출퇴근 시간 운행률 최대한 확보, 철도시설 안전 유지 만전”

□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,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,870명으로 파업참가율*은 22.1%이다.

* '23 파업당시 첫날 파업참가율 21.7%

□ 열차운행 현황(12.5. 11:00 기준)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.3% 운행* 중이며,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.3% 운행 중이다.

* KTX 92.2%, 여객열차 89.6%, 화물열차 58.8%, 수도권전철 96.9%

○ 출·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%(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%), 퇴근시 85% 운행할 계획이다.

* GTX-A, 인천공항철도, 서해선 등 민자운영 노선은 모두 정상운행 중

□ 한편, 12월 5일(목)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*하여,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.

* 時/所/參 : 12.5(목), 10:00 ~ 10:20 / 서울역 / 국토부 장관,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

□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(이하 코레일)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, “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,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”이라면서,

○ “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”이라며, “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”고 강조하였다.

- 특히, “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열차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하여 출퇴근 시간 감축을 최소화하고, 대체교통 마련에 만전”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운행 정보 등 안내를 철저히 하는 한편, 철도역사를 비롯하여 철도 차량·시설·관제 등 안전유지에도 힘쓸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.
- 이어서, 박 장관은 파업 수송대책을 위해 투입된 군 대체인력을 격려하면서, “철도노조 파업 시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”며, “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비상수송대책본부	책임자	상황실장	오송천 (044-201-4802)
		담당자	총괄반장	유용일 (044-201-3971)